

## 광주지역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의 스트레스 요인과 대처방식조사

강혜영\* · 박소라\* · 장금옥\*\* · 박광혜\*\*\*

전남대학교 간호학과, \*운리초등학교, \*\*살레시오초등학교, \*\*\*동림초등학교

### Stressors and Coping Behaviors among the 5<sup>th</sup> · 6<sup>th</sup> Graders at Gwangju City

Hae Young Kang\* · So Ra Park\* · Keum Ok Chang\*\* · Kwang Hyae Park\*\*\*

\*Dept. of Nursing, Chonnam National University, CRINS Unri Elementary School

\*\*Salesio Primary School

\*\*\*Dongrim Elementary School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stressors and coping behaviors among the 5<sup>th</sup> · 6<sup>th</sup> graders at Gwangju city. The subjects were 352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the data were collected by self-reported questionnaire from June 19 to July 21, 2003. Study instrument to investigate stressors was developed 40-items summated scale ( $\alpha = .87$ ) with four subcategories: 8-items individualistic ( $\alpha = .72$ ), 11-items family life-related ( $\alpha = .70$ ), 14-items school life-related ( $\alpha = .76$ ) and 7 socio-environmental ( $\alpha = .63$ ) factors. And the instrument to examine stress coping behaviors was also developed 30-items summated scale ( $\alpha = .82$ ) with three subcategories: 10-items active ( $\alpha = .72$ ), 10-passive ( $\alpha = .75$ ), and 10-mystic ( $\alpha = .70$ ) coping behaviors. The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d ANOVA using SPSS/PC+ program.

The results were summarized as follows:

Mean score of stressors was  $66.6 \pm 14.45$  out of 160.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otal scores of stressors in terms of gender, grade, number of siblings and the school location. The score of individualistic stressors, on the other hand, was tended to be significant higher in the 6<sup>th</sup> graders ( $t = -2.155$ ,  $p = .032$ ) and the school children in Gwangsangu district where has mixed rural and urban characteristics ( $F = 2.408$ ,  $p = .049$ ).

Mean score of stress coping behaviors was  $61.3 \pm 12.24$  out of 120. It was significantly different in terms of number of siblings ( $t = 2.108$ ,  $p = .036$ ) and the school location ( $F = 4.928$ ,  $p = .001$ ). In several subcategories, the mean scores of active coping behaviors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the only children group ( $t = -2.127$ ,  $p = .034$ ) and Donggu district where traditional downtown area ( $F = 2.410$ ,  $p = .050$ ). and passive ( $F = 4.013$ ,  $p = .003$ ) and mystic coping ( $F = 2.720$ ,  $p = .030$ ) were also significantly higher in the same district.

In conclusion, the score of stressors of children in Gwangju city showed relatively low as that of other areas, and the children utilized active coping behaviors more frequently in various stressful situations.

---

Key words: stressor, Stress coping behavior, elementary school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스트레스는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지속되는 생의 일부로 아무리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이라도 정신적 스트레스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스트레스를 결코 무시할 수가 없으며 개개인이 갖고 있는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가 효과적으로 요구되고 관심의 대상으로 다루어야 함을 시사한다 (권숙희, 1998). 특히 Byrne & Mazanov (2002)의 연구에서 청소년 스트레스는 젊은 사람들의 건강을 고려해서 나타나는 중요한 영역이고 스트레스에 노출은 청소년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건강문제와 관련되었음은 물론 우선적인 건강위험 행동으로 예견하였음에 비추어 이는 아동들에게도 동일하리라고 미루어 볼 수 있는 것이다.

권숙희(1998)는 현장에서 아동들을 지도하면서 초등학교 아동들도 많은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하여 어른 못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관찰하였다. 즉 다양한 가치의 혼재와 미래 예측의 어려움, 학력위주, 서열화, 일등이 아니면 꼴찌인 사회풍토 속에 살고 있는 초등학교 아동들도 매일 스트레스적인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성인들은 성숙된 인지 양식을 가지고 있어 스트레스를 나름대로 해결할 자원 및 방식을 가지고 있지만, 아동들의 경우에는 인지 수준이 성인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들의 대처 방식을 모방하거나 그대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성인기에 지속될 수도 있는 내적 외상 내지는 발달적 불균형을 초래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보경, 2000). 아동기 스트레스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아동의 일상 환경이 스트레스에 부과적인데에 반하여 아동의 대처능력은 미숙하다는 데 있다는 것이다.

Piekarska(2000)에 의하면 아동들이 받는 스트레스를 도전 또는 위협으로 인식하느냐에 따라 건설적인 대처행동과 파괴적인 대처행동을 취하는데 폴란드의 아동들의 30.6%만이 건설적인 대처방법을 사용하고 69.4%는 파괴적인 생존 대처 형태를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즉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똑같은 사건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정도는 개인이 스트레스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스트레스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 (정애현, 2001).

이와 같이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스트레스 반응이 중요하다고 볼 때, 아동의 성장 과정에 미치는 스트레스에 대한 구체적 실태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스트레스를 주제로 한 연구(문금순, 1992)를 보면 아동에게 스트레스적인 사건들 및 아동의 일반적인 스트레스 수준 등에 대한 탐색적 자료가 보고되고 있지만, 연구의 범위가 좁아 전반적인 아동의 스트레스를 파악하는데는 무리가 있다라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초등학교 아동이 일상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모든 요인으로써 경험하는 스트레스 요인을 크게 개인, 가정, 학교, 사회적 요인으로 구분한 아동들의 스트레스 요인과 능동적, 수동적, 신비적으로 구분한 대처방식을 파악하고자 한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아동의 스트레스 요인과 대처행동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광주지역 초등학교 5·6학년 아동의 스트레스 요인을 파악한다.
- 2) 광주지역 초등학교 5·6학년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파악한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설계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초등학교 5, 6년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학생의 스트레스 요인과 대처행동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며, 연구 대상은 광주시에 소재하는 각 구별 1개 학교를 임의표출하여 각 학년당 1반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고 추출된 수는 352명이었다.

### 2.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03년 6월 19일부터 7월 20일까지이며, 연구팀이 담임교사의 협조를 구한 뒤 수업시간을 이용하여 각 학급에서 담임교사의 감독 하에 설문지를 배부하고 기록하게 한 뒤 회수하였다. 회수된 질문지 중 불완전하게 응답한 4부를 제외하고 348명을 연구분석에 이용하였다.

### 3. 연구도구

#### 1) 스트레스 요인

아동의 스트레스 요인은 요인별 스트레스에 초점을 맞춘 친민필 (1993)이 연구한 “국민학교 아동의 스트레스 요인 연구”에서 제작한 질문지와 강석만 (2000)이 연구한 “초등학교 아동의 스트레스 요인에 관한 연구”의 질문지를 참고로 수정 보완하여 구성하였다.

이 검사는 아동이 인식하는 스트레스를 크게 4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으며 요인별 문항수는 개인요인이 8문항, 가정요인이 11문항, 학교요인이 14문항, 사회요인이 7문항으로 총 40문항으로 되어 있다. 각 문항은 스트레스를 인식하는 정도에 따라 4점 리커트 척도로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에 1-4점을 주도록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인식 정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본 조사에서 사용한 도구의 전체 스트레스 요인의  $\alpha$ 계수는 .87이며 하위요인별로는 개인요인이 .72, 가정요인이 .70, 학교요인이 .76, 사회요인이 .63이었다.

#### 2) 스트레스 대처행동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조사는 최근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Lazarus & Folkman (1984)의 체크 리스트에 대해 권숙희 (1998)가 번안하여 사용한 질문지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이 검사는 한 개인이 어떤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하여 나가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Gutmann의 세가지 환경통제 양식 즉 능동적 대처, 수동적 대처, 신비적 대처방식으로 구분하여 측정하며, 각 대처양식별로 10개씩 총 30개의 문항으로 되어 있다. 능동적 대처방식은 자아 기능이 강하게 작용하여 외적 환경을 스스로 능동적으로 통제함으로써 성취와 독립을 추구하는 행동을 의미하며, 수동적 양식은 외적 조건과 상황을 변화시키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환경에 적합하게 변화시킴으로써 외부 세계에 순응 또는 타협하려는 행동양식을 의미한다. 신비적 대처 양식은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시도나 노력을 하기보다는 모든 것을 신비나 우연에 내맡기려는 행동양식으로 자신의 안전과 자존심을 위하여 수단적, 도구적 행동보다는 거부 또는 투사와 같은 퇴행적 방어기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각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로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에 1-4점을 주어 점수가 높을수록 대처행동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전체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alpha$ 계수는 .85로서 나타났으며, 대처행동 하위요인별로는 능동적 대처가 .72, 수동적 대처가 .75, 신비적 대처가 .70이었다.

### 4.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PC+통계처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고, 일반적 특성과 변수간의 관계는 t-검증과 ANOVA 검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5.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조사대상을 광주지역의 각 구별 초등학교 1개교를 비확률적 임의표집에 의해 선정하였고 대상자의 문장이해 능력과 질문답변 능력을 고려하여 초등학교 5, 6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을 한정함으로써 연구결과를 전체 초등학교생에게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 III. 연구결과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로는 남자가 50.9%, 여자가 49.1%로 나타났으며, 학년별로는 6학년이 51.1%로 절반이 약간 넘

Table 1. General Backgrounds of the Subjects

		n=352	
		n	%*
Gender	boy	177	50.9
	girl	171	49.1
Grade	5 <sup>th</sup>	170	48.9
	6 <sup>th</sup>	178	51.1
No. of siblings	one or more	329	85.5
	only child	20	5.2
School Location	Donggu district	75	21.6
	Seogu district	55	15.8
	Namgu district	85	24.4
	Bukgu district	73	21.0
	Gwangsan-gu district	60	17.2

\* expected no response

었으며, 형제 유무별로는 형제가 있는 대상자가 85.5%로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학교 위치별로는 동구가 21.6%, 서구가 15.8%, 남구가 24.4%, 북구가 21.0%, 광산구가 17.2%로 나타났다.

**2. 스트레스 요인**

1) 대상자의 성별, 학년별, 형제유무별 스트레스 요인

대상자의 총 스트레스 요인 점수는 160점 만점에 66.4±14.45로 성별, 학년별, 형제유무별 차이는 <Table 2>와 같다.

성별로 분석했을 때 남자가 67.1±14.14, 여자가 66.1±14.76으로 남자가 스트레스를 여자보다 조금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왔으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네 개의 하위요인에서도 남녀간에 스트레스 인식 정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분석한 스트레스 요인은 5학년이 66.4±14.20, 6학년이 66.8±14.70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네 개의 하위요인중 개인적 요인만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 = -2.155, p = .032). 나머지 하위 요인은 학년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형제유무별 스트레스 요인에서 형제가 없는 대상자가 68.8±13.39, 형제가 있는 대상자는 66.5±14.52였고 하위요인 중에서는 학교 요인에서 형제가 없는 대상자가 25.0±6.11로, 형제가 있는 대상자 23.7±6.27보다 스트레스를 많이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들 모두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2) 학교 소재지별 스트레스 요인

대상자의 학교 소재지별 스트레스 요인은 <Table 3>과 같다.

**Table 2.** Stressors according to Gender, Grade and Number of Siblings

		Total	IND	FLR	SLR	SOC-ENV
		M±SD	M±SD	M±SD	M±SD	M±SD
Gender	boy	67.1±14.14	14.0± 3.90	17.2± 4.22	23.9± 6.31	11.9± 3.05
	girl	66.1±14.76	14.3± 4.09	16.8± 4.65	23.6± 6.22	11.4± 3.20
	(t, p)	(0.629, .530)	(-0.810, .418)	(0.785, .433)	(0.385, .701)	(0.451, .148)
Grade	the 5 <sup>th</sup>	66.4±14.20	13.7± 3.51	16.8± 4.35	24.3± 6.29	11.6± 3.13
	the 6 <sup>th</sup>	66.8±14.70	14.6± 4.37	17.2± 4.51	23.3± 6.20	11.8± 3.14
	(t, p)	(-0.239, .811)	(-2.155, .032)	(-0.857, .392)	(-1.517, .130)	(-0.635, .526)
Number of Siblings	one or more	66.5±14.52	14.1± 3.99	17.0± 4.43	23.7± 6.27	11.7± 3.16
	only child	68.8±13.39	14.5± 4.21	17.5± 4.66	25.0± 6.11	11.5± 2.74
	(t, p)	(0.655, .513)	( 0.432, .666)	(0.529, .597)	(0.866, .387)	(-0.301, .764)

IND=individualistic FLR=family life-related SLR=school life-related SOC-ENV=socio-environmental

**Table 3.** Stressors according to School Location

	Donggu district	Seogu district	Namgu district	Bukgu district	Gwangsangu district	F	p
	M±SD	M±SD	M±SD	M±SD	M±SD		
Total	67.1±14.52	66.1±12.92	67.6±14.56	63.4±15.02	69.0±14.56	1.446	.218
IND	14.0± 4.22	14.7± 4.54	14.2± 3.81	13.0± 3.32	15.0± 3.98	2.408	.049
FLR	17.0± 4.29	16.8± 4.48	17.1± 4.27	16.6± 4.38	17.7± 4.89	0.570	.685
SLR	24.5± 6.25	23.0± 4.62	24.4± 6.18	22.3± 6.78	24.5± 6.82	1.928	.105
SOC-ENV	12.0± 3.06	11.4± 2.75	11.7± 3.29	11.4± 3.22	11.9± 3.28	0.489	.744

IND=individualistic FLR=family life-related SLR=school life-related SOC-ENV=socio-environmental

대상자의 학교 소재지별 스트레스 요인은 광산구가  $69.0 \pm 14.56$ , 남구가  $67.6 \pm 14.56$ , 북구가  $63.4 \pm 15.02$ 의 순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하위요인별로 분석해 보았을 때 개인 요인에서 농촌지역특성과 공단유치 등의 신도시가 혼재한 광산구가  $15.0 \pm 3.98$ 로 타구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 $F = 2.408, p = .049$ ).

### 3. 대상자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1) 대상자의 성별, 학년별, 형제유무별 스트레스 대처행동

대상자의 총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120점 만점에  $61.3 \pm 12.24$ 로 성별, 학년별, 형제유무별 차이는 <Table 4>와 같다.

대상자의 성별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여자가  $61.9 \pm 13.1$ 로 남자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고 학년별로도 6학년이 적극적인 대처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들 모두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으며, 세 개의 하

위요인인 능동적 대처, 수동적 대처, 신비적 대처 모두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전체적인 학년별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6학년이  $61.8 \pm 12.31$ 로 5학년보다 적극적 대처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들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으며, 세 개의 하위요인 간에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대상자의 형제유무별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전체적으로 형제가 없는 대상자가  $67.1 \pm 17.00$ 로 형제가 있는 아동보다 대처방식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t = 2.108, p = .036$ ), 하위요인별로는 능동적 대처방식에서만 같은 결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 $t = -2.127, p = .034$ ).

2) 대상자의 학교 소재지별 스트레스 대처행동

대상자의 학교 소재지별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Table 5>와 같다.

대상자의 학교 소재지별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전체적으로 구도심의 중심지역인 동구가  $66.6 \pm 11.47$ 로 높으며 ( $F = 4.928, p = .001$ ), 세 개의 하위요인인 능

Table 4. Stress Coping Behaviors according to Gender, Grade and Number of Siblings

		Total	active coping	passive coping	mystic coping
		M±SD	M±SD	M±SD	M±SD
Gender	boy	60.7±11.38	21.5± 4.91	20.7± 5.11	18.4± 5.03
	girl	61.9±13.10	21.7± 5.33	21.4± 5.74	18.7± 5.71
	(t, p)	(-0.892, .373)	(-0.378, .705)	(-1.065, .288)	(-0.725, .469)
Grade	the 5 <sup>th</sup>	60.8±12.29	21.6± 4.93	21.0± 5.38	18.2± 5.38
	the 6 <sup>th</sup>	61.8±12.31	21.7± 5.30	21.1± 5.49	18.8± 5.37
	(t, p)	(-0.704, .482)	(-0.068, .946)	(-0.317, .752)	(-1.106, .272)
Number of Siblings	one or more	61.0±11.92	21.5± 5.11	20.9± 5.33	18.4± 5.23
	only child	67.1±17.00	24.1± 4.67	23.0± 6.88	19.9± 7.55
	(t, p)	(2.108, .036)	( 2.127, .034)	( 1.614, .107)	( 1.167, .244)

Table 5. Stress Coping Behaviors according to School Location

	Donggu	Seogu	Namgu	Bukgu	Gwangsangu	F	p
	M±SD	M±SD	M±SD	M±SD	M±SD		
Total	66.6±11.47	60.2±10.04	58.8±11.87	60.7±11.14	59.9±15.16	4.928	.001
active coping	23.1± 5.39	21.6± 4.09	20.9± 5.32	21.8± 5.06	20.8± 5.12	2.401	.050
passive coping	23.2± 5.43	20.7± 4.33	20.2± 5.14	20.6± 5.03	20.4± 6.55	4.013	.003
mystic coping	20.2± 6.07	17.8± 5.00	17.7± 4.67	18.2± 4.95	18.6± 5.88	2.720	.030

동적 대처 ( $F = 2.401, p = .050$ ), 수동적 대처 ( $F = 4.013, p = .003$ ), 신비적 대처 ( $F = 2.720, p = .030$ )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 IV. 논 의

본 연구는 광주지역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개인요인, 가정요인, 학교요인, 사회요인에 따른 스트레스 요인과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성별, 학년별, 형제유무별, 학교소재지별로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스트레스 요인 도구의 점수 범위가 80-120점인 것으로 볼 때 전체 아동의 스트레스 점수는  $66.6 \pm 14.45$ 로 스트레스 수준이 그렇게 높다고는 볼 수 없으나, 초등학생도 어느정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강석만 (2000)의 연구결과에서 초등학교 아동의 스트레스 수준이 그렇게 높다고 볼 수 없다는 것과 일치하겠다.

하위 요인별로 보면 개인요인에서 스트레스 수준이 비교적 높고 가족요인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는데, Piekarska (2000)의 폴란드에서의 학생들이 학교요인에서 스트레스를 높게 받고 있다는 것과는 다르게 나타났으며, 이는 양국 간의 학교특성은 물론 Piekarska (2000)의 연구가 주로 학교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연구에 집중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가족요인이 비교적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온 것은 초등학생들에게는 가정이 사회나 학교보다는 더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준다는 강석만 (2000)의 연구와 같은 맥락이라 사료된다. 개인요인이 가장 높게 나오는 것은 현대사회 특히 도시문화 안에서 가치관의 혼란이 초등학생에게도 영향을 끼쳐 여러 가지 형태로 자존감을 낮추게 하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성별 스트레스 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남아가 스트레스를 여아보다 조금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이정미 (1996)나, 천민필 (1993)의 연구결과에서도 아동이 부모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가 특히 남아가 여아보다 높았던 것과 같았다. 이는 활동 면에서 여아보다 남아가 행동이 산만하고 장난기로 인해 주변 사람들에 의한 저항감으로 스트레스를 더 인식한다 하겠다. 또한 우리나라 문화에 아직도 남아선호 사상의 잔재가 남아있어 부모가 여아보다 남아에게

많은 관심과 간섭, 높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연구자들마다 다양한 결과가 나왔는데, 연구대상의 연령이나 표집 방법이 상이하기 때문으로 보이며, 권숙희 (1998)의 연구와 강석만 (2000)의 연구결과에서는 여아가 남아보다 전반적으로 높다고 했는데 이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외모, 건강, 성격 및 사회적 편견(남아선호)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스트레스 요인을 살펴보면, 학년에 따른 스트레스의 정도는 5, 6학년이라는 학년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별다른 유의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지만 하위요인 중 개인적 요인만이 6학년이 더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학년별 스트레스 수준의 차이에서 6학년이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며, 심각성 정도도 높다는 이정미 (1996)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 하위요인 중 개인적 요인만이 차이가 나타났다는 결과는 현재 6학년이 5학년보다 여러 가지 개인요인 즉 진로문제 내년에 중학생이 된다는 부담감과 초기 사춘기에 있는 6학년 아동들이 자신에 대한 외모, 자신감, 성격, 건강 등에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

형제 유무별 스트레스 요인은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으나 형제가 없는 아동이 있는 아동보다 스트레스를 더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강석만 (2000)의 연구에서 형제관계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형제가 없는 학생이 다른 형제가 있는 아동보다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더 낮게 나타난 것과 상이한 결과인데 또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형제가 없는 아동이 있는 아동 특히 학교 요인에서 스트레스를 더 많이 인식하는 것은 외동으로 인한 부모의 기대가 크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는 학벌에 성공을 거는 우리나라 풍조에서 외동아에 대한 부모의 기대가 학업성취에 더 집중하는 결과로 볼 수 있겠다.

학교 소재지별 스트레스 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농촌과 도시의 지역에 따른 초등학생의 스트레스 수준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박경순 (1998)의 연구결과와 차이를 보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는 한 도시 내에서의 도시와 농촌 유형의 지역으로 구분한 반면 앞의 연구에서는 도시, 농촌이라는 지역의 문화차이에 따른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전반적

으로 광산구에 소재한 학교가 스트레스 수준이 다른 구에 소재한 학교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특히 하위요인인 개인요인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광산구가 스트레스를 더 인식하고 있는 것은 다른 지역보다 더 변두리이며 취약 지역이어서 그에 상응하는 환경을 조성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아동이 받는 스트레스 인식이 더 높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은 양순임(2000)의 폐쇄적이고 비성취적인 가정의 아동보다 개방적이고 성취적인 환경에서 자란 아동들이 정서표현이나 정서조절 능력이 더 높다고 한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외적 내적 자극에 대한 생리적 심리적 반응이라 볼 때 아동들에게 심리적 성장과정에서 필요한 자존감 형성 즉 주위 사람들의 지지, 격려, 인정 등의 보살핌에 맞는 가정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아동들에게 필요 불가결한 조건이라 하겠다.

전반적으로 총 스트레스 대처방식 점수는 범위가 30-120점인 것에 비추어 볼 때  $61.3 \pm 12.24$ 점으로 나와 초등학교 5, 6학년이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대체적으로 높게 사용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조사한 결과 능동적 대처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아동들의 능동적인 스트레스 대처 기술이 미숙하다는 이보경(2000)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나 고훈병(1998)의 능동적 대처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것과는 동일하다. 이는 요즘의 초등학교생들은 스트레스에 대해 어느 정도 대처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Piekarska(2000)에 의하면 아동들이 받는 스트레스를 도전 또는 위협으로 인식하느냐에 따라 건설적인 대처행동과 파괴적인 대처행동을 취하는데 폴란드의 아동의 경우는 30.6%만이 건설적인 대처방법을 사용하고 69.4%는 파괴적인 생존 대처 형태를 사용하는 것에 반하여 우리나라의 아동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대처행동을 취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성별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초등 5·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고훈병(1998)과 고훈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지형우(2001)의 연구결과와 동일하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여아가 남아보다 조금 높게 인식하는 것은 여아가 남아에 비해 스트레스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이고 다양하게 대처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학년별 스트레스 대처방식 또한 비슷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고훈병(1998)과 지형우(2001)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결과와 같았다. 이는 본 연구에서 뿐만 아니라 앞의 선행연구와 같이 대상자의 학년별 차이가 적었음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형제유무별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형제가 없는 대상자가 형제가 있는 대상자보다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능동적 대처에서 형제가 없는 아동이 형제가 있는 아동보다 높은 점수를 보인 것으로 보아 형제가 없는 아동이 있는 아동보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것에 대한 대처방식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다.

학교 소재지별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보면 각 학교 소재지별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하위요인별로도 능동적 대처, 수동적 대처, 신비적 대처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지역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김민기(2000)의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대상자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점수는 스트레스 요인 점수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초등학교 5·6학년 학생이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겠으며 본 연구에서 대처행동 모두에서 광주시의 전통적인 중심 도시 지역인 동구와 농촌지역인 광산구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은 박경순(1998)의 연구에서 도시지역 아동들이 농촌지역 아동들보다 대처행동이 보다 적극적이었던 보고와 일치한다.

전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아동들이 스트레스 요인보다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높은 점수를 나타내는 것은 예전에 비해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놀이 문화, 그리고 학교에서의 재량활동 시간을 통한 인성교육으로 어린이들이 자기표현과 자기노출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강화된 점등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농촌 유형의 광산구가 가장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낮고 다섯 학교 중 경제적 문화적 수준이 가장 높을 수 있는 사립학교인 동구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높다는 것은 양순임(2000)의 연구 결과에서처럼 가정의 분위기 때문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다. 전통적인 도심지역인 동구가 신도심 지역인 북구보다 스트레스 요인이 조금 더 높은 것은 가정의 자녀에 대한 높은 기대수준이 아동에게 심리적 부담감을 줄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할 때 아동에게 필요한 것은 어른의 기대수준이 아닌 알맞은 관심과 알맞은 보살핌이라 하겠다.

인간사회 안에서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다. 또한 아동들에게도 그들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받고 살기에 이런 스트레스를 담고 있기보다는 어떤 방법으로든 해소하는 것이 정신건강에는 좋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에서 살펴 본 것처럼 아동들이 스트레스 요인보다는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더 높은 점수가 나온다는 것은 아동건강측면에서 긍정적인 현상으로 보겠다. 스트레스 대처 방식에서 신비적 방식보다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방식을 아동들이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어른들이 도와준다면 스트레스가 아동들에게 걸림돌이 아닌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성장의 자극이 되어주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광주시에 학교위치별로 5개 학교를 임의 표출하여 초등학교 5, 6학년 352명(무응답자 제외)에게 설문지를 대상으로 스트레스 요인들을 살펴보고 그것이 성별, 학년별, 형제유무별, 학교위치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며,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식을 알아보고 성별, 학년별, 형제유무별, 학교위치별로 차이가 있는가를 밝히는데 있다.

자료수집은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자가 기술 방법으로 하였으며 아동의 스트레스 요인은 요인별 스트레스에 초점을 맞춘 천민필 (1993)이 연구한 “국민 학교 아동의 스트레스 요인 연구”에서 제작한 질문지와 강석만 (2000)이 연구한 “초등학교 아동의 스트레스 요인에 관한 연구”의 질문지를 참고로 수정 보완하여 구성하였고,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조사는 최근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Lazarus & Folkman (1984)의 체크 리스트에 대해 권숙희 (1998)가 번안하여 사용한 질문지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기간은 2002년 6월 19일부터 7월 21일까지이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PC(+)를 이용하여 서술통계, t-test, ANOVA로 검정하였다.

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총 스트레스 요인은 160점 만점에 66.6 ± 14.45로 성별, 학년별, 형제유무별, 학교소재지별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2. 대상자의 학년별 스트레스 요인은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하위요인중 개인 요인만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 $t = -2.155, p = .032$ ), 6학년이 5학년보다 스트레스를 조금 높게 받고 있었다.

3. 대상자의 스트레스 요인은 학교 소재지별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개인요인에서만 농촌지역특성과 공단유치 등의 신도시가 혼재한 광산구가 15.0 ± 3.98로 타구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 $F = 2.408, p = .049$ ).

4. 대상자의 총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120점 만점에 61.3 ± 12.24로 대상자의 성별, 학년별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형제가 없는 군 ( $t = 2.108, p = .036$ )에서 그리고 학교 소재지별로는 동구지역 ( $F = 4.928, p = .001$ )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5. 대상자의 스트레스 대처방식 하위요인에서는 능동적 대처방식의 점수가 형제가 없는 군에서 유의하게 높았으며 ( $t = 2.127, p = .034$ ), 소재지별로는 전통도심지역인 동구가 타구에 비해 능동적 대처 ( $F = 2.401, p = .050$ ), 수동적 대처 ( $F = 4.013, p = .003$ ), 신비적 대처 ( $F = 2.720, p = .030$ )방식 모두에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볼 때 광주지역 5, 6학년 아동들의 스트레스 요인은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낮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능동적 대처방식을 주로 사용함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스트레스 요인이나 그에 대한 대처방식은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라서 다르므로 유아기와 청소년기를 포함하는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요인과 그 대처방식에 대한 비교연구도 필요하다.

2. 본 연구는 초등학교 아동들의 스트레스 요인과 대처방식에 따른 조사연구를 하였기에 보다 심층적인 스트레스 요인과 대처방식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아동들의 특성을 감안한 관찰이나 면접에 의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참고 문헌

강석만. 초등학교 아동의 스트레스 요인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000.
- 고경봉, 박중규, 김찬형. 스트레스 반응 척도의 개발. 신경정신학회 2000; 39(4): 708-719.
- 고학병. 초등학생의 스트레스와 대처양식 탐색.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김민기. 학년과 성별에 따른 아동의 스트레스 지각 정도와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차이.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김 숙. 일부지역 아동의 스트레스 지각 정도와 스트레스 대처 행동의 차이. 한국학교보건학회지, 2003; 16(1): 55-66.
- 김영진. 초등학생의 스트레스 유형과 대처양식 발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문금순. 국민학교 어린이들이 느끼는 스트레스 수준과 자아개념과의 관계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 백경애. 초등학교 아동의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 이보경. 지각된 스트레스 수준 및 대처양식과 충동성향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2000.
- 안자희. 청소년의 스트레스 수준과 대처양식에 따른 문제행동 및 성격에 관한 연구. 한국학교보건학회지, 1996; 9(2): 171-184.
- 이정미. 국민학교 아동이 겪는 스트레스와 그 대처 방법 유형.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 임미향. 어린이들의 스트레스 생활 사건과 대처방식, 건강문제에 관한 연구. 아동간호학회지, 1992; 4(2): 193-206.
- 정영숙, 정승희. 일부지역 초등학생의 스트레스와 대처행위 측정. 한국학교보건학회지, 1996; 9(2): 185-195.
- 정승희, 정영숙. 초등학생이 일상생활 중 경험하는 스트레스 측정 도구 개발. 한국학교보건학회지, 1998; 11(2): 279-284.
- 지현우. 초등학교 학생들의 스트레스 유형과 대처양식에 관한 연구. 수원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양순임. 가정의 심리적 환경과 아동의 정서지능과의 관계.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권숙희. 초등학교 아동의 스트레스 요인과 대처양식의 탐색.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천민필. 국민학교 아동의 스트레스 요인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 최성윤. 아동기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 한미현.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 지각과 행동문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5.
- Piekarska, A. School Stress, Teachers' Abusive Behaviors, and Children's Coping Strategies. *Child Abuse & Neglect*, 2000; 24(11): 1443-1449.
- Byrne, D. G., & Mazanov, G. Sources of Stress in Australian Adolescents: Factor Structure and Stability over Time. *Stress and Health*, 2002; 18: 185-193.
- Muldoon, O. T. Perceptions of Stressful Life Events in Northern Irish School Children: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2003; 44(2): 193-201.
- Graham S., Furr, S. F., & Claudia P. Religion and Spirituality in Coping with Stress. *Counseling and Values v. 2001*; 46(1): 2-13.
- Deardorff, J., Gonzales, N. A., & Sandler, I. N. Control Beliefs as a Mediator of the Relation Between Stress and Depress Symptoms Among Inner-City Adolescent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003; 31(2): 205-217.
- Natvig, C. K., Albreksen, G. & Qvarnstrom, U. School-related Stress and Psychosomatic Symptoms Among School Adolescents. *Journal of School Health*, 1999; 69(9): 362-368.